

## 韓國 個別企業史 研究의 現況\*

金 東 雲\*\*

현재까지 발행된 398종류의 기업발행 회사사, 그리고 92편의 학술논문/단행본 등 개별기업/기업가사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 전자는 학술적인 방향의 설정 없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고, 후자는 양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기업 내부자료에 접하고 있지 못하는 등 기업사에 대한 업계 관심과 학계 관심이 협조와 교류 없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는 힘들지만 필수적인 과제는 '기업 문서보관소의 설치를 통한 기업 내부자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집, 활용'임을 지적함.

### I. 머리말

“社史[는]... 과거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를 거울삼아 미래를 보다 빛나게 창조해 가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세계 일류기업이 선경의 최대 명제이며... 이[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로서의 이 『선경40년사』는 실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1993, 최종현).<sup>1)</sup> “...[『진로그룹 70년사』에 담긴] 역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해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1994, 장진호).<sup>2)</sup> “머지 않아 우리 태평양은 선진 외국기업과 경쟁하여 이기는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우

\* 이 논문은 한국경제학회 제7차 국제학술대회(1996년 8월)에서 발표된 것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충북대 김성기 교수는 유익한 논평을 해 주었으며 경영사학회 회장인 경희대 김성수 교수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었다. 익명의 심사위원들은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다음 분들도 논문 작성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 한국상업은행 김재하 과장, 부산대 김호범 교수, 부산외국어대 박영구 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유광호 교수, 원자력연구소 이만기 박사, 동국대 이시영 교수, 진주산업대 이용호 교수, 두산그룹 이태현 부장, 고려대 조기준 교수, 조흥은행 한백홍 실장 모두께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선경40년사』, 1993, 그룹회장 발간사, 16면.

2) 『진로그룹70년사』, 1994, 그룹회장 발간사, 13면.

뚝 설 것입니다. 『태평양50년사』는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새로운 50년을 위한 디딤돌이자 21세기 태평양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입니다”(1995, 서성환).<sup>3)</sup>

한국기업이 세계화, 무한경쟁으로 특징지어질 21세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난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 도전과 응전의 경험으로부터도 귀중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음에 틀림없다. 미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의 발전적인 재등장인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경영자들이 자신이 몸담아 온 기업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세기에 대비하는 각오를 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에서 나온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40년, 50년, 70년 동안에 이루어진 도전과 응전,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웠던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하였는지가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되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선경, 진로, 태평양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진다면, 각 기업은 자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역사로부터도 적지 않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기업들은 귀중한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會社史를 발행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문적인 여과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심각한 점은 학계의 낮은 관심이다. 개별기업 또는 기업가를 분석한 학술연구가 기업발행 회사사에 비해 양적으로 월등히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내부문서가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사에 대한 업계 관심과 학계 관심이 협조와 교류 없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국기업사 연구의 현주소이다.

한편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기업발행 개별기업 역사서술서가 심각한 ‘객관성 결여’의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학술연구가 탄탄한 미시적 기초 - 개별기업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내부자료에 근거한 - 없이 성급한 일반화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기업, 기업가, 산업의 행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자본주의의 운행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개별기업사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3) 『태평양50년사』, 1995, 그룹회장 기념사.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개별기업 혹은 기업가에 관련된 연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국기업사 연구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기업 안팎의 모든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함에 틀림없다. 企業史(Business history)는 기업의 행태를 긴 시간에 걸쳐 고찰하고 나아가 그 행태를 그것이 일어난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 자리매김하는 학문영역으로서,<sup>4)</sup> 그의 관심은 개별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내부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기업군, 산업 그리고 전체 경제에도 당연히 향해지기 때문이다.

개별기업관련 연구 중 기업발행의 회사사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기업사 연구단계에서는 귀중한 정보제공처로 남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두 고려하려고 노력하였다. 필자의 시선이 미처 닿지 못한 회사사들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 조사된 398종류는 한국회사사의 총목록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한편 20여 종류의 개별기업가 관련서적이 출판되어 있으나 회사사와는 성격이 판이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비해, 조사된 92편의 학술연구는 전혀 망라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주요 연구는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대표성은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92편에는 개별기업 연구 이외에 개별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4) Wilson(1995), p. 1; Supple(1971), p. 1. Business History는 통상 ‘經營史’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으나, ‘企業史’란 용어가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Business History라는 이름하에 연구되는 주제가 기업의 ‘경영’(business administration)이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기업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등의 경영환경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Economic History가 보다 거시적인 경제현상을 다루는 학문영역인 데 반해, 거기에서 생성된 Business History는 보다 미시적인 시각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를 거시경제사(Macro-economic History), 후자를 미시경제사(Micro-economic History)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Business History의 개념, 방법론 등 일반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Wilson 책의 ‘1. Business history: an introduction’, Supple 책의 ‘Introduction: approaches to business history’(Supple 집필)와 ‘1. A framework for British business history’(Supple), Ashton(1959), Barker et al.(1960, 1971), Boff and Herman(1980), Chandler(1978, 1984), Cole(1962, 1965), Coleman(1987), Gras(1934, 1939), Hannah(1981), Harvey(1989), Hidy(1970), Holmes and Ruff(1975), Hyde(1962), Hutchins(1958), Johnson(1962), Kroos(1958), Payne(1963, 1967), Redlich(1962), Stone(1971), Tucker(1972), Supple(1962), Walton(1962).

Business History의 주요 국가에서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aughman(1965), Chick(1993, 1995), Church(1976), Fisher(1977), Goodall(1987), Goodall et al.(1995), Hannah(1983), Harvey and Jones(1990), Jaeger(1974), McKinlay(1992), Marwick(1967), Matthews(1991), Rosovsky and Yamamura(1970), Singleton(1996), Slaven(1984), Supple(1959), Ville(1992), Wilson(1994).

포함되어 있는데, 기업가를 중심으로 회사의 역사를 고찰하고 있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개별기업가 관련 서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학술원이 발행한 『학술총람 50집 - 경제학편 I(1945-1992)』(1995)에 학술논문 목록이 빠져 있고, 국회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등 주요 기관에 학술지, 단행본 등이 망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본 논문과 같은 연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경제학회에서 작성하고 있는 경제학관련 연구 총목록집에 기업사관련 논문들이 빠짐없이 담기기를 기대해 본다.

‘제대로 된’ 개별기업사이기 위한 필수조건은 1차 자료, 즉 기업의 내부자료의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극히 일부의 연구만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연구가 취하는 주제, 접근방법,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한 질적인 평가, 그리고 이들 연구로부터의 ‘한국기업’ 혹은 ‘한국기업가’에 대한 일반화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도하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 개별기업사 연구의 의의를 살펴본 다음, 제Ⅲ절과 제Ⅳ절에서 기업 발행 회사사 현황과 학술적인 개별기업 연구현황을 각각 논의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기업사 연구의 발전방향의 핵심인 ‘기업문서보관소의 설치를 통한 기업내부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활용’을 지적한다. 올바른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외국 학계의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Ⅱ. 개별기업 연구의 의의

개별기업 사례연구의 중요성은 패인(P. L. Payne)에 의해 잘 지적되고 있다. 그는 영국기업가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개별기업가와 기업에 대한 정보의 충분하지 못함에서 찾았다:

“기업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정당한 평가를 위한 열쇠는 그가 속한 기업의 문서들을 분석하는 데에 있음에 틀림없다. 한 기업가가 활동한 극히 구체적이고 매우 복잡한 환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신(letter books), 경리장부(account books), 비망록(internal memoranda) 등 각종 문서들을 분석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문헌분석에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업가의 행태는 개별기업의 환경 속에서만 정당히 평가되어질 수 있으며, 이렇게 밝혀진 한 기업의 경우는 '같은 시장을 상대로 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의 그것'과 비교되어질 때 그 의미가 더욱 정당히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다른 맥락에서, 서플(B. Supple)도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의 관심은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변화에 - 특정 주제를 적절한 분량 속에서 소화해 내는 류의 - 있었다. 영국경제사학회를 대신해 편집한 *Essays in British Business History*(1977)의 서문에서, 그는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의 성격규정과 수집에 따른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업 혹은 기업가의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험을 다루는 논문을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신, 그들은 한 기업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를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엮어 내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들로부터, 한 특정 주제를 적절한 길이로 마무리한 하나의 장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은 가히 한 혁신이라 할 수 있었다. 개별기업사의 책을 출판한 여덟 명의 저자들에게 그 책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 일화, 시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길이의 논문을 써 줄 것을 의뢰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모은 이 책의 논문들은 특정 주제들을 산업 혹은 경제 전체의 맥락에서 평가함으로써 기업사 혹은 기업가사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sup>6)</sup>

개별기업의 분석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별기업 연구 그 자체의 집

5) Payne(1988), p. 49. 그의 사례연구에 대한 강조는, 그의 책에 제시된 개별기업/기업가에 대한 사례연구의 방대한 목록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6) Supple(1971), p. 5. 최근, 영국기업사학계에서는 Supple이 주장하는 류의 개별기업사 연구의 질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Wilson(1954) - 회사의 의뢰로 쓰여진 최초의 학문적인 회사역사서로 평가되는 - 이후 형성된 소위 윌슨증후군(the Wilson syndrome)에서 벗어나 '분명히 정의된 기준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짧고 주제중심적인 연구로의 길'이 모색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Kim(1995), pp. 45-46을 참조. 학자의 회사사 집필의 의의에 대해서는 Gourvish(1992) 참조.

착이기보다, 개별기업가와 기업의 행태가 있는 산업, 그리고 개별기업의 소우주(microcosm)가 있는 대우주(macrocasm)로서의 경제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sup>7)</sup> 이와 관련하여, 마사이어스(P. Mathias)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개별기업사의 연구가 일반적인 쟁점들과의 관련하에서 쓰여져, 개별기업에 만 관련되는 미시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넓은 소우주로서 읽혀질 수 있는 한, 나는 개별기업사 연구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sup>8)</sup>

### Ⅲ. 기업발행 會社史 현황

1996년 8월 현재, 256개 기업에 관련된 398종류의 개별기업 역사서 혹은 會社史가 해당 기업에 의해 발행되어 있다(<표 1>, <부록: 회사사 명단>).<sup>9)</sup> 이들에 관련된 몇 가지 외형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기업들(182개, 71%)이 한 권의 회사사를 발행하였으나, 적지 않은 기업들(74개, 29%)은 자신의 역사를 두 번 이상 정리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1957년 60년사를 낸 이후 5년마다 회사사를 발행, 1992년의 95년사까지

7) 올드크로프트(D. H. Aldcroft)에 의하면, 패인(Payne)류의 미시적 접근방법은 기업가활동의 평가에 필요한 주제와 해답을 취급함에 있어 적절한 정도의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효하고 대표적인 기업들의 표본을 얻어내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대신, 그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을 선호하고 있다(Aldcroft(1975), p. 337). 하베이(C. Harvey)도 역시 거시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만 ‘대표적인 기업들의 표본이 추출되어질 수 있는’ 기존의 사례연구들에 연구가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Harvey(1979), p. 5). 한편 서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거시적인 방법(aggregate measures)보다 사례연구가 기업가활동의 일반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수단인지 아닌지는, 개념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활동의 측정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기준(measures)이 선택되어질지, 그리고 그 기준에 관한 가장 손쉬운 정보의 출처가 어떤 것이 될지에 의해 판가를 날 것이다”(Supple(1975), p. 77). 개별기업의 행태가 있는 산업/경제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는 찬들러(A. D. Chandler)일 것이다: 특히, Chandler(1990, 1991) 참조; 그의 1988년 이전의 출판물은 McCraw(1988), pp. 505-517에 정리되어 있다.

8) Mathias(1991), p. 4.

9) 이한구(1994, 12-77면)는 회사사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도 참조: 조경식(1982), 13-42면; 한국홍보연구소(1987), 27-31면; 유귀훈(1995), 15-21면. 일본기업 발행 회사사 현황은 동양경제신문사(1995, 別卷), 388-404면에 잘 나타나 있다. 영국기업 발행 회사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헌은 없으나, Payne(1988)의 부록, 그리고 Jeremy and Shaw(1986-1988)와 Slaven and Checkland(1986, 1991)에 실린 각 항목의 참고문헌에 주요 회사사가 나타나 있으며, Goodall(1987)도 참조.

〈표 1〉 기업이 발행한 會社史

기업의 수(개)	182	41	20	7	2	—	4	1	합계	256			
회사사의 수(권)	1	2	3	4	5	6	7	8		398			
발행연도(년)	1936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6							
회사사의 수(권)	1	7	27	74	143	138	합계	390					
서술된 기간(년)	5	7	10	12	15	19	20	21	23	24	25	26	27
회사사의 수(권)	11	2	86	2	15	1	82	1	1	1	23	1	1
(년)	30	31	33	35	37	38	40	43	44	45	48	50	55
(권)	61	1	3	9	2	1	23	1	1	6	1	28	2
(년)	60	65	70	75	80	85	90	93	95				
(권)	8	1	7	2	2	1	1	1	1	합계			390

출처: 〈부록: 회사사 명단〉.

여덟 종류의 역사서를 발행하였으며, 1997년에는 100년사를 낼 계획으로 있다. 중소기업은행(5권), 한국조폐공사(5), 제일은행(7), 포항제철(7), 한국은행(7), 한일은행(7) 등도 5권 이상의 회사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발행연도가 확인된 390권 중 72%(281권)는 1980년 이후에 발행되었다. 일제시대 때 발행된 것으로는 『개성전기연혁사』(19년사, 1936)가 유일하며, 해방 이후에는 『경성전기55년연혁사』(1953)가 가장 먼저 활자화되었다. 이 회사는 5년 후에 『경성전기주식회사60년연혁사』를 또 발행하였다. 그 외에 1950년대에 나타난 회사사는 『조선전업주식회사10년사』, 『한국은행5년사』, 『조흥은행60년사』, 『제일은행30년지』, 『한국상업은행60년지』 등이다.

1995년에는 경향건설, 고려제강, 동아그룹, 대웅제약, 대한페인트링크, 서울신문, 중외제약, 제주신문, 태평양그룹, 한진그룹 등 해방둥이 기업들이 자신의 반 세기 역사를 책으로 엮었으며, 같은 해 삼성데이타시스템(10년사), 삼양사(70), 전주문화방송(30), 중앙일보(30), 코오롱상사(40), 한국가스안전공사(20), 한국기업리스(10), 한국이동통신(10), 한국증권금융(40), 한국토지공사(20), 호유에너지(10) 등도 회사사를 발행하였다.

셋째, 서술된 역사의 기간은 5년에서부터 95년에 걸쳐 35종류이며, 그 중에서도 10년(86권, 22%), 20년(82권, 21%), 30년(61권, 16%), 50년(28권, 7%), 25년과 40년(각각 23권, 6%) 등 6개 기간이 절대 다수(303권, 78%)를 차지하고 있다. 25년 미만의 기간을 다룬 책(202권, 52%)이 과반수 이상이며, 5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회사사의 수는 14%(54권)에 불과하다.

5년사를 발행한 기업은 국민은행(1968), 기술신용보증기금(1994), 대구은행(1973), 대한재보험공사(1968), 신용보증기금(1981), 중소기업은행(1966), 한국가스공사(1988), 한국수출입은행(1981), 한국신탁은행(1973), 한국은행(1955), 한국전력(1966) 등 11개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신탁은행(서울은행에 합병)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회사는 그 이후 여러 차례 회사사를 발행하였다. 가장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는 『조흥은행95년사』(1992)이며, 『조흥은행90년사』(1987)와 『두산그룹사』(93년사, 1989) 등도 9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넷째, 기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합은 398종류).

1) 서술식이 아닌 사진집 7종: 『기아, 기아인, 도전 반세기』(1994), 『동양석판25년기념화보』(1984), 『책임과 함께 걸어온 50년』(대한페인트잉크, 1995), 『사진으로 본 기은31년』(중소기업은행, 1992), 『포항제철20년, 땀과 슬기와 정성』(1988), 『사진으로 본 한독약품30년』.

2) 기업의 전반적인 측면 대신 특정 사건을 다룬 회사사 2종: 『서울신탁은행합병사』(1977), 『포항제철850만톤준공사』(1981).

3) 영문판 2종: *A History of the First City Bank of Korea, 1929-1969*(제일은행, 1969), *Korea's Posco Lights The Way Igniting Steel*(포항제철, 1993).

4) 2권의 책으로 낸 경우 4종: 『두산그룹사』(93년사, 1989), 『대구매일신문사사, 1946-1981』(1982), 『한국전력20년사』(1975), 『현대건설35년사』(1982).

5)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군 혹은 그룹을 대상으로 한 경우: 『동아그룹50년사』(1995), 『동양그룹30년사』(1987), 『두산그룹사』, 『대신30년사』(1992), 『라이프그룹30년사』, 『삼성50년사』(1988), 『삼양식품30년사』(1991), 『쌍룡50년사』(1989), 『선경40년사』(1993), 『진로그룹70년사』(1994), 『태평양50년사』(1995), 『한진50년사』(1995) 등.

6) 서술된 기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발행된 회사사 4종: 『동아일보사사』 1권, 1920-1945(1975년 발행), 2권, 1945-1960(1978), 3권, 1960-1970(1985), 4권, 1970-1980(1990).

7) 서술분량(합은 311종류): 250페이지 이하 20종, 251-500페이지 105종, 501-750페이지 109종, 751-999페이지 49종, 1,000페이지 이상 28종.

회사사가 한 기업에 대해 한 번 발행되든 여덟 번 발행되든, 5년을 다루든 95



년을 다루든, 일반적인 서술형태를 취하든 화보형태를 취하든, 분량이 250페이지이든 1,500페이지이든 그리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기업발행 역사서의 결정적인 약점은, 저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자료의 출처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과는, 연구의 책임성과 일관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산만한 정보의 모음이면서 기념용이자 전시용인 회사사일 뿐이다. 398권의 회사사들 중 397권이 저자 없이 혹은 사사편찬위원회 명의로 발행되어 있다. *Korea's Posco Lights The Way Igniting Steel*(포항제철, 25년사, 1993)이 유일하게 두 미국언론인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책 표지에 저자 이름이 나와 있는지, 각주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sup>10)</sup>

책의 겉표지에 명시가 되든 되지 않든, 거의 모든 경우의 회사사는 각 부서에서 차출된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사편찬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료수집 등 실무는 하위직 직원 몇 명에 의해 진행되며, 집필은 내부 임직원이 주로 하면서 일부는 작가나 언론인 등 외부에 의뢰되기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5년사를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기획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본사와 사업소의 부장 및 과장 12명을 위원으로 하는 사사편찬위원회와 공보실에 실무반([공보역, 대리 등 7명])이 구성되어 10개월여에 걸친 편찬작업을 진행하였다... 고유업무에 매달려 있는 집필자들과 편찬실무반 사이에 당기고 늦추기를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원고를 재작성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감수를 맡아 주신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한국가스공사5년사』(1988), 책 맨 뒤의 ‘편찬을 마치고’).

2) “1989년 3월 각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3명의 실무위원으로 30년사 편찬실을 구성한 후... 5개월 만에 30년의 史歷을 더듬어 한 권의 책을 엮어[내었다]... 느닷없이 요청한 원고청탁서에 충실하고자 바쁜 업무 중에서도 애써 주신 원고집필자 제위께... [감사드립니다]”-편찬위원회 위원장-사장, 전문위원-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대우이사 15명 (『롯데건설30년사』(1989), 490-491면).

10) 이한구(1994), 57-58면.

3) 편찬위원회 위원장 - 사장A, 기획위원 - 사장B, 전무, 집필위원 - 제1부 발전사 사원 3명, 제2부 부문사 사원 13명, 제3부 계열사 17개 회사별로 각각 사원 1, 2명 합 21명; 실무위원회 위원 - 부, 실, 팀의 부차장급 관리자, 기획 및 진행 - 부장, 과장, 대리, 사원 5명(『태평양50년사』(1995), 책 맨 뒤의 ‘편찬조직’).

4) “... 일반업무를 수행하다 년사발간업무를 맡게 된 편집진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은 일면 두려움과 아쉬움으로 남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무이사 박××(『조흥은행90년사』(1987), 책 맨 뒤의 ‘편집후기’).

5) “... 집필담당자들의 대부분이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데다 바쁜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잡다기한 사실을 기록해야 했으므로 부실한 점도 적지 아니 노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기획부장 배××”(『한국상업은행90년사』(1989), 책 맨 뒤의 ‘편집후기’).

6) “... 그룹통사는 외부 작가가, 그룹계열사사는 사내에서 집필한다는... 기본 방향이 수립되었다... 각사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편찬위원회와 각사 중역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룹통사의 자료수집과 각 계열사사의 원고감수 및 제작 일체를 총괄진행할 그룹사사편찬실이 조직되었다. 아울러, 각사에 선 자료수집과 원고집필을 담당할 전담자와, 전담자의 집필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전담 부서장으로 사사편찬팀을 구성했다. 이와 같이 계열사사를 20여 명의 아마추어 史家들이 동시 집필하고 이를 묶어 한 권의 책으로 발행한다는 기획은 국내 사사 발간사상 유례없는 일이었고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것이었다”(『두산그룹사』(1989), 1515면).

전문학자 혹은 회사사가가 편찬을 의뢰받아 일관되게 자료수집과 집필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책 표지에 내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들이 회사사의 편찬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회사 내부 직원도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회사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결같은 점은, 서술내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출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사실을 기술하였다 하더라도 제삼자가 그 진위를 어떻게 신뢰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동아그룹50년사』(1192-1193면, 1970-1994년), 『태평양50년사』(880-883면, 1959-1994년), 『삼성50년사』(802-805면, 1953-1986년)에 실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

산서, 『한국가스공사5년사』에 실린 회사 및 한국의 가스산업관련 77개의 표, 그리고 『삼성50년사』의 '제1부 개화 이후의 민족경제'와 1945년 이전 섬유산업사의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된 『경방70년』의 제 I 절-제 IV 절 등에는 전혀 정보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들 정보가 거짓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그룹의 성장사를 연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영업실적 관련정보를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와 위험이 따름에 틀림없다. 출처도 없고 주요 항목에 대한 보충설명도 덧붙여져 있지 않은 표에 신뢰는 절대적일 수 없으며 이해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업활동의 환경으로서의 산업과 경제에 대한 서술이 객관적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환경 속에서의 해당 기업의 위상이 제대로 전달될 수는 없다.

저자도 없고 출처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수집된 귀중한 회사 내부 정보는 산만하게 나열되기 일쑤이고 미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산만한 정보는 두툼한 호화양장 속에 담겨 있으며, 책은 겉도 근사하고 속도 고급용지에 천연색 사진들이 즐비하다. 또, 거의 대부분의 회사사는 해당 기업에서 발행되며 비매품이다. 독립된 출판사에서 발행되어 서점에 꽂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398종류의 회사사 중 『동아일보사사 1권 1920-1945』(1975), 『서울신문50년사』(1995), 『조선일보60년사』(1980), 『한국산업은행30년사』(1984), 『한국은행25년사』(1975) 등 극히 일부에만 가격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 IV. 학술적인 개별기업 연구현황

1996년 8월 현재, 개별기업 또는 기업가를 분석한 학술논문 또는 단행본 수는 92편이며, 대상이 된 기업/기업가의 수는 70개/명, 기업별로 보면 58개이다(<표 2, 3>). 이를 기업발행 회사사(256개 기업, 398종류)와 단순비교해 보면, 분석된 기업의 수(23%)에 있어서나 논문/단행본의 수(23%)에 있어서나 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선구적인 업적은 조기준(1974)으로서 일제시대에 활동한 18개/명의 기업과 기업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별기업 연구는 1986년 『경영사학』이 창간된 이후이며, 1996년호까지 실린 94편의 논문 중 40편(42%)이 개별기업/기업가 관련 논문이다. 여기서는 해방 이후의 기업활동이 주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 학술지보다 일찍 시작된 『경제사학』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1995년까지 실린 97편의 논문 중에서 1편만이 개별기업을 다루고 있다. 1953년 시작된 『경제학연구』에는 그 성격상 개별기업/기업가 관련 논문이 채택될 여지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경제사 논문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던 초창기에도 미시적인 시각은 추구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1945-1994년 동안 국내에서 쓰여진 1,132편의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도 오직 1편만이 사례연구일 뿐이다.

〈표 2〉 개별 한국기업/기업가를 다룬 학술논문/ 단행본

	발행연도	총논문 수	개별기업 논문	분석된 기업의 수
-학술지-				
『경영사학』	1986-1996	94	40	30
『경제사학』	1977-1995	97	1	1
『경제학연구』	1953-1996	469	2	2
『경영학연구』	1971-1996	332	0	0
『경영실무』	1967-1976	—	(13)	(13)
『경영사례연구』	1977-1993	—	(46)	(46)
기타(McNamara)	1988	—	1	1
-단행본-				
(『학술총람』)	1945-1992	407	0	0
조기준	1974	—	18	18
조동성	1984	29	(25)	(24)
McNamara	1990	—	3	3
Eckert	1991	—	1	1
김병하	1991	16	7	7
황명수	1993	28	17	17
Janelli	1993	—	1	1
-박사학위논문-				
경제학	1945-1994	1,132	1	1
경영학	1975-1994	1,685	0	0
합계	—	—	92(165)	82(164)-70-55*

주: 1) \* 분석된 82개/명의 기업/기업가 중 같은 것을 제외하면 70개/명, 이를 다시 기업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55개임(〈표 3〉 참조); 『경영실무』, 『경영사례연구』, 조동성(1984)에 실린 글은 본격적인 학술논문은 아니지만 유용한 연구임.

2) 학술지 발행기관: 『경영사학』- 한국경영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회,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경영학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실무와 경영사례연구』- 서울대 경영연구소.

3) 『학술총람』(학술원 편, 1995)에 실린 총단행본수 407편은 경제사, 한국경제론, 산업경제학 등 세 분야의 합.

4) 『경제학연구』- 37권(1985) 빠짐. 『경영학연구』- 27-30권(1990-1991), 34-36(1993-1994), 40(1995), 42(1995) 빠짐.

5) 김병하(1991)에는 14편의 개별기업/기업가 논문이 있으나, 7편은 『경영사학』에 실린 것임.

〈표 3〉 학술논문/ 단행본에서 분석된 70개/ 명의 기업/ 기업가(55개 기업)

경성방직(조기준, Eckert, McNamara90) · 김성수(황명수) · 김연수(McNamara88)	구포은행(조기준)
共興자동차주식회사 · 방의석(조기준)	金井금광 · 김태원(영)
금성방직(영, 김병하) · 김성곤(황명수)	김윤면상점 · 김윤면(조기준)
김원근상점 · 김원근(황명수)	동아건설(영) · 최준문(영)
개성전기주식회사 · 김정호(조기준)	동양염직주식회사 · 김덕창(영)
동아백화점 · 최남(조기준)	대성(Janelli)
두산그룹 · 박두병(김병하, 황명수)	대웅제약(영) · 윤영환(영)
대우그룹 · 김우중(김병하, 황명수)	대한교육보험(영) · 신용호(영)
大圓광업(영)	
럭키금성그룹 · 구인회(김병하, 황명수)	백산상화 · 안희제(조기준)
박승직상점 · 박승직(조기준, 김병하, 황명수)	北鮮상업은행(조기준)
백윤수상점 · 백윤수(조기준)	삼성그룹(영, 박사)
三共합자회사(영)	삼성전자(영)
삼성물산(영) · 이병철(영, 황명수)	삼척시멘트공장(제사)
삼양사 · 김연수(김병하)	쌍룡양회(영)
쌍룡그룹 · 김성곤(영)	선경그룹 · 최종건(김병하, 황명수)
쌍방울 · 이봉녕(영)	유한양행(영) · 유일한(영)
수산업협동조합(제학)	일신방직 · 김형남(황명수)
利運社(제학)	제일모직(영)
전남방직 · 김우주(황명수)	중외제약(영) · 이종호(영)
제일제당(영)	청정유기공장 · 이승훈(조기준, 황명수)
천우사(영) · 전택보(황명수)	충남製絲(영)
春園社 · 공성학(조기준)	한국비료(영)
포항제철 · 박태준(황명수)	한성은행 · 김종한(조기준) · 한상룡(조기준)
한국유리 · 최태섭(황명수)	한진그룹(영) · 조중훈(영)
한일은행 / 동일은행(McNamara90)	현대건설(영)
현대그룹 · 정주영(황명수)	화신백화점(McNamara90)
호남은행(조기준)	김기덕(조기준)
효성그룹 · 조흥제(황명수)	이용익(조기준)
박기중(조기준)	

주: 1) 괄호 안은 출처(〈표 2〉 참조): 영·『경영사학』, 제사·『경제사학』, 제학·『경제학연구』, 박사·박사학위 논문.

2) 유한양행(2편 논문), 대한교육보험(3), 김성곤(2), 유일한(3) 등은 『경영사학』에서 2번 이상 분석됨.

3) 『경영실무』, 『경영사례연구』, 조동성(1984) 분석 기업: 『경영실무』-경일공업, 근화화학약품, 동양나일론, 동양맥주, 동해전력개발, 대한전선, 대한해운공사, 신세계백화점, 신진자동차, 제일모직, 한일약품, 현대자동차, 흥국생명보험; 『경영사례연구』-관악시계, 관악자동차부품, 광주은행, 국민은행, 금성사, 김씨서점, 논노엔터프라이즈, 농협연쇄점, 동광교역, 동아자동차, 두산전자, 대동화학, 대양물산, 대양상사, 대양자동차, 대우그룹, 대웅제약, 대한교육보험, 대한석유공사, 문화語研, 미원그룹, 민영산업, 맥슨전자, 삼양타이어, 서경자동차, 서울기계, 서울섬유, 서울전자, 유공, 유일물산, 유한양행, 이천산업, 이랜드, 이수전자, 제일산업, 천마공업, 코렉스, 유닉스, 한국맥주, 한국야쿠르트, 한국연쇄점, 한국통신, 한국화학, 한영전자, EAC코리아, K전력: 조동성(84) · 금성사, 동일산업, 동화기업, 대림수산, 대상국제개발, 대성아메리카, (주)대우, 대우산업, 대한석유공사, 삼성물산, 삼성코닝, 쌍룡(주), 서울무역상사, 선경합섬, 아메리칸크래프트, 유한김벌리, 앤코회사, 콘드롤데이타코리아, 포항종합제철, 한국강관, 한국다우케미칼, 한성프리렉브, 한양화학, 현대건설.

이보다는 『경영학연구』 그리고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1975-1994년간 총 1,685편)에서 사례연구가 전무한 것이 더 의아스럽게 여겨진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발행되는 『경영실무』와 『경영사례연구』에서는 사례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사학』을 발행하는 한국경영사학회 회원 300여명 중 상당수가 경영학과 또는 회계학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례연구를 위한 저변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영학연구』의 편집인은 한국적 경영학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가설 도출적인 논문을 더 환영하고 있는 터이며,<sup>11)</sup> 사례연구의 유용성은 특히 미국 하버드경영대학원에서의 경험에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sup>12)</sup> 본격적인 학술서는 아니지만 조동성(1984)에서 사례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김병하와 황명수가 여러 편의 사례연구를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McNamara, Eckert, Janelli 등 외국학자들은 1-3개 기업을 한 책 속에서 집중 분석하였다.

양적인 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용된 자료의 성격이다. 조기준(1974)은 구한말, 일제시대 기업가연구에서 자료수집 어려움의 심각성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 개화기의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서도 단편적인 기록은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으나, 그의 출생, 성장과정 및 사회활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전하는 기록은 거의 없다. ... 기록에 의한 자료의 결핍은 古老들의 회상진술로서 보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작업도 쉽지는 않았다. ... 일제시대의 기업가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있었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6·25동란[은]... 결정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이 혼란기에 유용한 자료들이 불타버렸고... 남북분단은 일제시대에 북한에서 활동한 기업가들의 연구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자료수집 문제는 해방 이전 혹은 이후 기업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 같다.

92편의 개별기업 연구 중 회사 내부문서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은 Eckert

11) 『경영학연구』 24-33(1995), 392면.

12) 조동성(1984), 4면.

13) 조기준(1974), 16-17면.

(1991)가 유일하다. 이 책에는 경성방직주식회사의 서울 본사와 용인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기록이 치밀하게 분석되어 있다: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Meeting, 1919-1945; Minutes of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1931, 1939, 1945; Loan Ledger, 1944-1945; Itemized Expense Ledger (Yongin ledger), 1934-1942; Business Report, Profit and Loss Statement, Balance Sheet, 1942-1945; Transfer Slip, Inspection Voucher for Goods Received, Invoice, 1942; Travel Expense Statement, 1941; Sales Premiums Ledger, 1938-1939; Daily Sales Ledger, 1943; List of Annual Payments to Japanese Language Class Instructors, 1938 등.<sup>14)</sup>

1차 자료의 활용 정도는 떨어지지만, 김혜수(1991)는 귀중한 자료인 영업보고서를 이용하여 1945-1950년 간의 충남製絲주식회사의 경영활동을 모색하였으며, 삼성그룹의 다각화 과정과 소유경영구조를 다룬 김영욱(1993)에도 영업보고서, 주주명부 등의 내부문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경환(1993)과 김신웅(1994)에도 영업보고서에 근거한 분석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박재록(1994)과 황명수(1996)는 회사 내부자료를 상당수 활용하고 있으나, '유한양행 제공자료' 혹은 '교보생명보험 제공자료'라고만 제시되어져 있을 뿐 구체적인 출처가 없다.

한편, 김준현(1987), 김병하(1987), 이한구(1995)는 또 다른 귀중한 1차 자료인 증언, 신문, 잡지 등을 적극 동원하고 있으며, 손태현(1971)은 각종 외교문서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섭렵하고 있다.<sup>15)</sup> 월간잡지에 연재되었던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기준(1974)에는 자료의 출처가 본격적으로 제시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이용익, 박기종, 김기덕, 최남(동아백화점), 구포은행, 김윤면 상점의 분석은 상당 정도로 1차 문헌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들 중의 상당수는 기업발행의 회사사를 주 참고문헌으로 삼고 있다.

14) Eckert는 활용한 기업문서의 목록을 정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문서가 집중적으로 활용된 부분은 2부의 3-6장이다: Part II The Patterns of Growth - 3. Class and State - The Financial Nexus; 4. Class and State - Partners in Management; 5. Between Metropole and Hinterland - The Acquisition of Raw Materials and Technology; 6. Between Metropole and Hinterland - The Quest for Markets (265-338면의 Notes).

15) 역사연구에서 증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Premru(1994), Thompson(1983) 참조.

## V. 맺음말 - 기업문서보관소 설치의 필요성

지금까지 축적된 398종류의 회사사와 92편의 학술연구는 귀중하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본격적인 개별 기업사 연구업적이 이어지고, 그것은 한국기업의 세계화에 도움이 될 충고자로서, 그리고 한국기업사 연구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기업문서보관소(business archives)’를 설치하여 기업의 내부분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류, 보관, 분석, 활용하는 노력이다. 265개의 기업들은 회사사의 발행을 위해 수많은 자료를 발굴, 수집한 바 있으므로 이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가 효과적으로 보존, 활용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보관기구가 필요하며, 그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문서보관인(archivist)의 고용이 뒤따라야 한다.<sup>16)</sup>

보다 중요한 점은, 자료란 회사사 편찬이라는 일회적이고 간헐적인 목적으로 모아져서는 안 되며, 그 자체로서(per se) 중요하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일이다. 자료란 미래의 어떤 용도에라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현재의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가야 한다. 5대양 6대주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남겨, 10년, 30년, 그리고 50년 후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마련하는 토대로 삼겠다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일상의 방대한 자료를 전부 보관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취사선택은 전문문서보관인의 몫이다. 현재, 조흥은행은 興史室, 한국상업은행은 商銀史料室이라는 자료실에 방대한 분량의 각종 자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조흥은행의 경우 전문보관인은 아니지만 전담직원이 상주하고 있다.<sup>17)</sup> 다른 많은 기업들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영국의 경우, 전국 각지의 기업, 대학교, 공공도서관 등에 기업문서보관소가

16) Archive, archivist의 역할, 기능, 각국에서의 현황 등에 대해서는 *Business Archives*(기업자료의 보관을 주관하는 영국의 Business Archives Council 발행 학술지, 1996년 5월 현재 71호)에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다음을 참조: Jones(1996), Harley(1994), Morgan(1992), Orbell(1993), Pickford(1995a,b), Shepherd(1994), Stockford(1991), Turton(1991)도 참조.

17) 두 은행 자료실에는 ‘자료등록대장’과 ‘상은자료목록’ 등 자료목록집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정리가 요구된다. 두 자료실의 현황에 대해서는 『금융』(1994. 1), 76-77면; 『상은가족』(1992. 4), 14-15면 참조.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보관인이 이를 관리한다. 현재, 1760-1914년 사이에 활동한 1,200개의 섬유 및 고무관련 기업, 그리고 1,230개의 금속관련 기업의 내부문서들이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sup>18)</sup> 보관되어 있는 문서의 종류는 기업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다음의 15유형이 주를 이룬다: 1) Prospectuses, 2) Articles of association, 3) Board minute books, 4) Letter books, 5) The chairman's statement, 6) Registers of directors, 7) Registers of members, 8) Diaries, 9) Book-keeping records - journals and ledgers, 10) Balance sheets and profit and loss accounts, 11) Staff records, 12) Patents, 13) Licences, 14) Premises records, 15) Dealers and agency agreements.<sup>19)</sup>

기업문서보관소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은 긴 시간 속에서 꾸준한 노력 그리고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기업만의 몫이 아니며, 학자, 도서관운영자의 이니셔티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유럽 최대 규모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기업문서보관소(Business Records Centre of Glasgow University Archives)는 그 좋은 예이다. 영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던 글래스고의 수많은 조선소들은 1945년 이후 일본 등에 밀려 문을 닫고 있었으며, 이 때 글래스고대학교의 경제사학과 교수 한 사람이 버려질 위기에 있던 조선소관련 문서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1958년 수집담당 전임강사를 고용하였다. 처음에는 문서보관장소가 없어 전임강사 자신의 좁은 연구실에 보관하였으며, 현재의 쾌적한 장소가 확보된 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다.<sup>20)</sup>

우리 나라에서도, 막 파산한 기업 혹은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산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자들의 문서확보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직하다. 한때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수많은 대구 섬유업체들이 좋은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부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것의 발굴, 보존, 활용에의 노력이 업계와 학계 모두에 절실한 지금이다.

18) The Royal Commission on Historical Manuscripts(1990, 1994). 다음도 참조: Mathias and Pearsall(1971), Pressnell and Orbell(1995), Richmond and Stockford(1986), Ritchie(1992).

19) Armstrong and Jones(1987)에 각 유형의 자료의 성격, 유용성 등이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20) Moss(1984, 1985, 1995) 참조; 하버드대학의 경우에 대해서는 Lathrop(1988) 참조.

## 參 考 文 獻

### 〈개별기업/ 기업가 연구〉

1. 고재경, “省谷의 경영과 인맥”, 『경영사학』 제2호, 1987.
2. 고승희, “교보생명보험의 경영진들”, 『경영사학』 제12호, 1996.
3. \_\_\_\_\_, “동아건설 창업자의 생애와 경영이념”, 『경영사학』 제11호, 1995.
4. \_\_\_\_\_, “유한양행의 경영진들”, 『경영사학』 제9호, 1994.
5. 김광수, “김형남과 일신방직”,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6. \_\_\_\_\_, “동아건설의 성장과 발전”, 『경영사학』 제11호, 1995.
7. 김병하, “三共합자회사에 관한 고찰”, 『경영사학』 제2호, 1987.
8. \_\_\_\_\_, “省谷의 생애와 경영 이념”, 『경영사학』 제1호, 1986.
9. \_\_\_\_\_, “省谷의 기업가활동”, 『경영사학』 제2호, 1987.
10. \_\_\_\_\_, 『재벌의 형성과 기업가활동』, 한국능률협회, 1991.
11. \_\_\_\_\_, “조흥제의 생애와 경영이념”,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12. \_\_\_\_\_, “湖巖의 사업 전환 - 제일제당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4호, 1989.
13. \_\_\_\_\_, “湖巖의 생애와 경영이념”, 『경영사학』 제3호, 1988.
14. \_\_\_\_\_, “1979년까지의 현대건설의 자본축적과 경영이념”, 『경영사학』 제5호, 1990.
15. \_\_\_\_\_, 최명규, “湖巖의 다각적 경영과 한국비료”, 『경영사학』 제4호, 1989.
16. 김성수, “교보생명보험의 성장과 발전”, 『경영사학』 제12호, 1996.
17. \_\_\_\_\_, “유한양행의 성장과 발전”, 『경영사학』 제9호, 1994.
18. \_\_\_\_\_, “靜石의 생애와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11호, 1995.
19. 김신웅, “유한양행과 한국제약사업”, 『경영사학』 제9호, 1994.

20. \_\_\_\_\_, “중외제약의 성장과 발전”, 『경영사학』 제11호, 1995.
21. \_\_\_\_\_, “청암 김원근의 자본형성과 변화”,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22. 김영옥, “三星의 다각화 과정과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3.
23. 김응식, “연암 구인회의 기업활동”,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24. 김준현, “小南 金台原의 事蹟과 金井금광의 경영”, 『경영사학』 제2호, 1987.
25. 김혜수, “1945-1950 충남製絲(주)의 경영구조”, 『경영사학』 제6호, 1991.
26. 민경환, “대우 김우중의 기업경영활동”,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27. 박광서, “교보생명보험과 한국보험사업”, 『경영사학』 제12호, 1996.
28. \_\_\_\_\_, “牧山 許周烈의 생애와 경영이념”, 『경영사학』 제7호, 1992.
29. \_\_\_\_\_, “설봉 전택보의 재계활동과 경영이념”,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30. \_\_\_\_\_, “유일한의 경제사상과 사회적 책임”, 『경영사학』 제9호, 1994.
31. \_\_\_\_\_, “중외제약의 성장과 경영이념”, 『경영사학』 제11호, 1995.
32. \_\_\_\_\_, “청삼 최태섭의 생애와 경영이념”,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33. 박순원, “해방 후 삼척시멘트공장의 재건 과정: 1945-60 - 인적, 기술적 관리 측면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17호, 1993.
34. 박재록, “유일한의 유업과 승계 발전”, 『경영사학』 제9호, 1994.
35. \_\_\_\_\_, 방한오, “而山 李奉寧의 생애와 경영이념”, 『경영사학』 제8호, 1993.
36. 서진수, “포항제철과 박태준”,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37. 손태현, “利運社논고 - 한국 최초의 기선회사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19호, 1971.
38. 신용수, “남강 이승훈의 기업활동”,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 신양사, 1993.
39. 안세원, “水協마케팅에 관한 연구-물적유통관리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30호, 1982.
  40. 안춘식, “대웅제약 운영환의 생애와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11호, 1995.
  41. \_\_\_\_\_, “유일한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 『경영사학』 제9호, 1994.
  42. \_\_\_\_\_, “湖巖과 삼성전자의 사업 전개-반도체사업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4호, 1989.
  43. 유기덕, “해방 후 민간무역에 관한 연구 - 천우사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7호, 1992.
  44. 유정공, “재벌, 정부 관계의 역사적 추이-삼성재벌의 사업 확장”, 『경영사학』 제6호, 1991.
  45. 이건희, “교보생명의 창립 초기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 『경영사학』 제12호, 1996.
  46. \_\_\_\_\_, “대웅제약의 성장과 발전”, 『경영사학』 제11호, 1995.
  47. 이상옥, “담연 최종건의 기업활동”,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48. 이한구, “염직계의 시조 김덕창 - 동양염직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8호, 1993.
  49. \_\_\_\_\_, “한진그룹 형성과정 연구”, 『경영사학』 제11호, 1995.
  50. 전형, 홍성호, “해촌 김용주와 전남방직”,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51. 정규백, “아산 정주영의 창업과 기업활동, 기업가 이념”,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52. 조기준,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74.
  53. \_\_\_\_\_, “한국시멘트공업의 전개와 쌍룡양회”, 『경영사학』 제2호, 1987.
  54. \_\_\_\_\_, “湖巖과 제일모직”, 『경영사학』 제4호, 1989.
  55. 조동성, 『한국기업의 국제경영사례』, 경문사, 1984.
  56. 최태호, “연강 박두병의 기업경영 정신”,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57. 황명수, “大山 慎鑄虎의 생애와 경영이념”, 『경영사학』 제12호, 1996.
58. \_\_\_\_\_, “매헌 박승직의 생애와 기업활동”,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59. \_\_\_\_\_, “삼성물산의 성립과 湖巖의 기업가활동”, 『경영사학』 제4호, 1989.
60. \_\_\_\_\_, “省谷과 금성방직”, 『경영사학』 제2호, 1987.
61. \_\_\_\_\_, “성곡 김성곤의 기업활동 - 금성방직을 중심으로”,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62. \_\_\_\_\_, “유일한의 생애와 경영이념”, 『경영사학』 제9호, 1994.
63. \_\_\_\_\_, “인촌 김성수의 생애와 경영이념”, 황명수 편, 『한국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64. \_\_\_\_\_, “호암 이병철의 기업활동 -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황명수 편, 『한국 기업의 역사적 성격』, 신양사, 1993.
65. Eckert, C. J., *Offspring of Empire -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66. Janelli, R. L., *Making Capitalism: Th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of a South Korean Conglomer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67. McNamara, D. L., “Entrepreneurship in Colonial Korea: Kim Youn-Su”, *Modern Asian Studies*, Vol. 22, No. 1, 1988.
68. \_\_\_\_\_,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1910-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기타>

1. “조흥은행 홍사실”, 『금융』, 한국은행연합회, 1994. 1.
2. “93년의 숨결이 스민 상은자료실”, 『상은가족』, 한국상업은행, 1992. 4.
3. 국회도서관 편,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1945-1994.
4. Kim, D. W., “Some Issues in the Study of the British Family Firm”, 『경제학논집』 제4권 1호, 1995.

5. 김상규, “한국『경영사학』의 연구 동향”, 『경영사학』 제5호, 1990.
6. 대한민국학술원 편, 『학술총람 50집 - 경제학편』(I)(1945-1992), 1995.
7. 유귀훈, 『사사제작법』, 나루, 1995.
8. 이종순, 지정택, “사사 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발전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7호, 1992.
9. 이한구, 『회사사의 이론과 실제』, 북아프리에, 1994.
10. 조정식, 『사사편집제작의 실제』, 서울경영연구소, 1982.
11. 한국홍보연구소, 『사사의 기획과 편집』, 1987.
12. 東洋經濟新聞社, 『日本會社史總覽』, 東京, 1995.
13. Aldcroft, D. H., Review of Payne(1974), *Economic History Review*, Vol. 28, No. 2, 1975.
14. Armstrong, J. and S. Jones, *Business Documents - Their Origins, Sources and Uses in Historical Research*, London, Mansell Publishing, 1987.
15. Ashton, T. S., “Business History”, *Business History*, Vol. 1, 1959.
16. Barker, T. C. et al., *The Study of Business History*, London, 1960.
17. \_\_\_\_\_, *Business History*, London, 1971.
18. Baughman, J. P., “Recent Trends in the Business History of Latin America”, *Business History Review*, Winter 1965.
19. Boff, R. B. de and E. S. Herman, “Alfred Chandler’s New Business History: A Review”, *Politics and Society*, Vol. 10, 1980.
20. Chandler, A. D., “Business History - A Personal Experience”, *Business and Economic History*, Vol. 7, 1978.
21. \_\_\_\_\_, “Comparative Business History” in Coleman et al., 1984.
22. \_\_\_\_\_, *Scale and Scope -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1990.
23. \_\_\_\_\_, *Strategy and Structure: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Industrial Enterpris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1.
24. Chick, M., “British Business History: A Review of the Periodical Literature for 1991”, *Business History*, Vol. 35, No. 1, 1993.

25. \_\_\_\_\_, "British Business History: A Review of the Periodical Literature for 1993", *Business History*, Vol. 37, No. 1, 1995.
26. Church, R., "Business History in Britain",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Vol. 5, 1976.
27. Cole, A. H., "What is Business History", *Business History Review*, Spring 1962.
28. \_\_\_\_\_, "Aggregative Business History", *Business History Review*, Vol. 39, No. 3, 1965.
29. Coleman, D. C., "The Uses and Abuses of Business History", *Business History*, Vol. 29, No. 2, 1987.
30. Coleman, D. C. et al.(eds.), *Enterprise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31. Ernst, J. W., "The Business Archivist: Problems and Perspectives", *Business History Review*, Winter 1970.
32. Fisher, W., "Some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in West Germany" in Gallman, 1977.
33. Gallman, R. E.(ed.),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Greenwich, Conn., 1977.
34. Goodall, F., *A Bibliography of British Business History*, Aldershot, 1987.
35. Goodall, F. et al.(eds.),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Business History*, London, Routledge, 1995.
36. Gourvish, T., "Commissioned History and Access to Modern Business Records",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1992*, Business Archives Council, 1992.
37. Gras, N. S. B., "Business Histo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4, No. 4, 1934.
38. \_\_\_\_\_, *Business and Capitalism: An Introduction to Business History*, New York, 1939.
39. Hannah, L., *New Horizons for Business History?*, London, Social Science and Research Council, 1981.

40. \_\_\_\_\_, "New Issues in British Business History", *Business History Review*, Vol. 57, 1983.
41. Harley, J., "The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the Archivist in Business", *Business Archives*, Vol. 67, 1994.
42. Harvey, C., "Business History and the Problem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the Rio Tinto Company", *Business History*, Vol. 21, No. 1, 1979.
43. \_\_\_\_\_, "Business History: Concepts and Measurement", *Business History*, Vol. 31, No. 3, 1989.
44. Harvey, C. and G. Jones, "Business History in Britain into the 1990s", *Business History*, Vol. 32, No. 1, 1990.
45. Hidy, R. W., "Business History, Present Status and Future Needs", *Business History Review*, Vol. 44, No. 4, 1970.
46. Holmes, G. and H. Ruff, "The Perils of Entrepreneurial History", *Business History*, Vol. 17, No. 1, 1975.
47. Hyde, F. E., "Economic Theory and Business History", *Business History*, Vol. 5, No. 1, 1962.
48. Hutchins, J. G. B., "Business History, Entrepreneurial Histor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18, No. 4, 1958.
49. Jaeger, H., "Business History in Germany: A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siness History Review*, Vol. 48, No. 1, 1974.
50. Jeremy, D. J. and C. Shaw(eds.), *Dictionary of Business Biography*, 5 volumes, London, 1986-1988.
51. Johnson, A. W., "Where does Business History go from here?", *Business History Review*, Spring 1962.
52. Jones, G., Review of Janelli(1993), *Business History*, Vol. 36, No. 3, 1994.
53. Jones, P. L., "Records Management Training in the UK: Facing the Future, Preserving the Past", *Business Archives*, Vol. 71, 1996.
54. Kroos, H. E., "Economic History and the New Business History",



-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18, 1958.
55. Lathrop, F. B., "Toward a national collecting policy for business history: the view from Baker Library", *Business History Review*, Vol. 62, No. 1, 1988.
  56. McCraw, T. K.(ed.), *The Essential Alfred Chandler - Essays Toward a Historical Theory of Big Business*, Boston, Mas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8.
  57. McKinlay, A., "British Business History: A Review", *Business History*, Vol. 34, No. 2, 1992.
  58. Marwick, W. H., "A Bibliography of Scottish Business History" in Payne, 1967.
  59. Mathias, P., *Inaugural lecture for the Association of Business Historians*, London, Business History Unit, LSE, 1991.
  60. Mathias, P. and A. W. Pearsall(eds.), *Shipping: A Survey of Historical Records*, David & Charles, 1971.
  61. Matthews, D., "British Business History: A Review of the Periodical Literature for 1989", *Business History*, Vol. 33, No. 2, 1991.
  62. Morgan, N., "Born 1990, Still Going Strong: Setting Up the United Distillers' Archive", *Business Archives*, Vol. 63, 1992.
  63. Moss, M., "Forgotten Ledger, Law and the Business Historian: Gleamings from the Adam Smith Business Records Collection", *Archives*, Vol. 16, 1984.
  64. \_\_\_\_\_, "Business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Glasgow", *Business History Newsletter*, Vol. 11, 1985.
  65. \_\_\_\_\_, "The Melancholy Events in a Mean Abode in the Shankill Road - An Allegory for Our Time? The Management of Business Record Collections Within a University",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1995*, Business Archives Council, 1995.
  66. Orbell, J., "An Archivist as Administrator of a Collection of Works of Art", *Business Archives*, Vol. 65, 1993.
  67. Payne, P. L., "The Uses of Business History: A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Business History*, Vol. 5, 1963.

68. \_\_\_\_\_, "Business History", in Payne, 1967.
69. \_\_\_\_\_ (ed.), *Studies in Scottish Business History*, London, 1967.
70. \_\_\_\_\_, *British Entrepreneurship in the Nineteenth Century*, 1st ed., London, Macmillan, 1974.
71. \_\_\_\_\_, *British Entrepreneurship in the Nineteenth Century*, 2nd ed., London, Macmillan, 1988.
72. Pickford, C., "New Directions in Archive Repository Management", *Business Archives*, Vol. 69, 1995a.
73. \_\_\_\_\_, "Keeping Abreast of Changes in Local Government: An Archivist's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1995*, Business Archives Council, 1995b.
74. Premru, F., "Oral History at Work - London Transport's West Indian Workforce", *Business Archives*, Vol. 67, 1994.
75. Pressnell, L. A. and J. Orbell, *A Guide to the Historical Records of British Banking*, London, Gower, 1995.
76. Redlich, F., "Approaches to Business History", *Business History Review*, Vol. 36, No. 1, 1962.
77. Richmond, L. and B. Stockford, *Company Archives: the Survey of the Records of 1,000 of the First Registered Companies in England and Wales*, London, Gower, 1986.
78. Ritchie, L. A., *The Shipbuilding Industry: A Guide to Historical Records*, 1992.
79. Rosovsky, H. and K. Yamamura, "Entrepreneurial Studies in Japan: An Introduction", *Business History Review*, Spring 1970.
80. The Royal Commission on Historical Manuscripts, *Records of British Business and Industry 1760-1914 - Textiles and Leather*, London, HMSO, 1990.
81. \_\_\_\_\_, *Records of British Business and Industry 1760-1914 - Metal Processing and Engineering*, London, HMSO, 1994.
82. Shepherd, E., "Records Management in Britain - A Review of Some Developments in Professional Principles and Practice", *Business*

- Archives*, Vol. 67, 1994.
83. Singleton, J., "British Business History: A Review of the Periodical Literature for 1994", *Business History*, Vol. 38, No. 2, 1996.
84. Slaven, A., "The Uses of Business Records: Some Research Trends in British Business History", *Business Archives*, Vol. 50, 1984.
85. Slaven, A. and S. G. Checkland(eds.), *Dictionary of Scottish Business Biography*, 2 volumes, Aberdeen, 1986, 1990.
86. Stockford, B., "Case Study 1: Burmah Castrol - The Records Management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1991*, Business Archives Council, 1991.
87. Stone, L., "Prosopography", *Daedalus*, Vol. 100, No. 1, 1971.
88. Supple, B. E., "American Business History - A Survey", *Business History*, Vol. 1, 1959.
89. Supple, B., "The Uses of Business History", *Business History*, Vol. 4, 1962.
90. \_\_\_\_\_ (ed.), *Essays in British Business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91. \_\_\_\_\_, Review of Payne(1974), *Business History*, Vol. 27, No. 1, 1975.
92. Thompson, P. I., "Oral History and the Historian", *History Today*, Vol. 33, 1983.
93. Tucker, K. A., "Business History: Some Proposals for Aims and Methodology", *Business History*, Vol. 14, No. 1, 1972.
94. Turton, A.(ed.), *Managing Business Archives*, London, Butterworth-Heinemann, 1991.
95. Ville, S., "An Historiographical Assessment of New Zealand Business History", *Business History*, Vol. 34, No. 2, 1992.
96. Walton, C. C., "Business History: Some Major Challenges", *Business History Review*, Spring 1962.
97. Wilson, C., *The History of Unilever: A Study in Economic Growth and Social Change*, 2 volumes, London, Cassell & Co., 1954.

98. Wilson, J. F., *British Business History 1721-1994*,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99. \_\_\_\_\_, "British Business History: A Review of the Periodical Literature for 1992", *Business History*, Vol. 36, No. 2, 1994.

〈부록: 會社史 명단〉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강원은행20년사	20	90	684	무	
강원일보30년사	30	75			
강원일보40년사	40	85	442	국	
경기은행10년사	10	80	435	무	
경기은행15년사	15	84	655	무	
경기은행20년사	20	89	685	무/사	
경기화학30년사	30	84	257		
경남은행10년사	10	80			
경남은행20년사	20	90	731	무	
경성방직50년	50	69	432		
경방60년	60	80	497		
경방70년	70	89	686	무	
경성전기55년연혁사	55	53			
경성전기주식회사60년연혁사	60	58			
京水투자금융10년사	10	91	272	국	
경향건설50년사, 1945-1995	50	95	521	국/사	
경향신문40년사	40	86	775	국/사/해	
고려무역20년사	20	89	333	무/국	
고려제강50년사	50	95	614	해	
고려화재30년사	30	78	557	무	
광주은행15년사	15	83			
광주은행20년사(15년사 추록)	20	88	467	무/사	
광주은행25년사	25	93	851	무/국/사	
광주일보40년사	40	92	743	무/국/해	
(국민신용카드(주))국민카드12년	12	93	267	사	
국민은행5년사	5	68			
국민은행10년사	10	73			
국민은행30년사	30	93	1071	무/국	
국정교과서주식회사35년사	35	87	695	국/해	
국제상사30년사: 1949-1979	30	79	740	무	
국제종합금융10년사, 1977-1987	10	87	213	무	
금강개발산업20년사	20	92	381	무/국/사	
금성계전20년사	20	94	909	무	
금성사25년사	25	85	941	무	
금성사35년사, 1958-1993	35	93	1086	무/국/사/해	
금성전선20년사	20	84	771	무	
금성통신20년사	20	92	844	무	
기술신용보증기금5년사	5	94	447	국/사	
기아45년사: 1944-1989	45	89	956	무/국	
기아50년사	50	94	1056	무	
기아, 기아인, 도전 반세기	50	94	352	무	화보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개성전기연혁사	19	36			
(남양어망공업(주)) 남양어망20년사	20	80			
남해화학10년사	10	84	712	사	
남해화학20년사	20	94	408	무/사	
농어촌개발공사10년사	10	77			
농민신문30년사	30	94	529	국/사/해	
도루코30년사	30	91	499	무/국/해	
동방생명10년사	10	67	385		
동방생명20년사	20	77			
동방생명30년사	30	87	570	사/해	
동서식품20년사	20	90	233	무/사	
동아그룹50년사, 1945-1995	50	95	1311	국/사/해	
동아방송사	27	90	626	해	
동아일보사사, 1권 1920-1945	25	75	513	무	가격 표시
동아일보사사, 2권 1945-1960	15	78	381	무	
동아일보사사, 3권 1960-1970	10	85		국	
동아일보사사, 4권 1970-1980	10	90	444	국/해	
동아계약50년사: 1932-1982	50	82	403	무	
동아투자금융10년사	10	92	305	무	
동양그룹30년사	30	87	984	국/사	
동양나일론10년사	10	76	637		
동양나일론25년사	25	93	770	국/해	
(동양맥주(주)) OB20년사	20	72	607	무	
동양석판공업주식회사20년지	20	79	253	무	
동양석판25년기념화보	25	84	82		화보
동양석판30년사	30	89	321	무	
동양시멘트10년사	10	67			
동양정밀20년사	20	74			
동양통신사사	30	82	569	무/국	성곡언론 문화재단 발행
동양투자금융10년사	10	83	174	무/국	
동양투자금융20년사	20	93	295	무	
동양폴리에스터10년사	10	83	579	사	
동양폴리에스터20년사: 1973-1993	20	93	563	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50년사	50	72	702	무	
동양화재70년사	70	92	771	국/사	
동일방직사사, 1955-1981	26	82	367	국	
동원산업20년사	20	89	317	무	
두산그룹사	93	89	1517	무	2권
대구문화방송30년사	30	94	834		
대구매일신문사사, 1946-1981	35	82	1120	국	2권
대구은행5년사	5	73			
대구은행10년사	10	77			
대구은행20년사	20	87	519	무	
대구투자금융10년사	10	90	361	무/국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주식회사대농)대농30년사	30	85	533		화보
대농35년사	35	82	983		
대신증권23년사	23	85	654	무 / 국	
(대신그룹) 대신30년사	30	92	573	무	
대우조선 성장 15년사	15	93	181	무	
대우증권20년사	20	90	470	무 / 사 / 해	
대웅계약50년사	50	95			
대유증권37년사	37	91	747	사	
대전일보30년사	30	81			
대전일보40년사	40	91	522	국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업진흥사		77			
대한교육보험20년사	20	79	614	무	
대한교육보험30년사	30	89	755		
(대한무역진흥공사) 무공10년	10	72	179		
한국의 수출진흥30년사: KOTRA30년사	30	92	875	국	
대한보증보험15년사	15	84	546	국	
대한보증보험25년사	25	94	688	무	
(대한석유공사) 유공10년사	10	68			
유공20년사	20	83	507	무	
유공30년사	30	93	473	무 / 국 / 사	
대한생명30년사	30	76	507		
대한생명40년사	40	87	769	무 / 국	
대한조선공사30년사	30	68			
대한주택공사20년사	20	82			
대한주택공사30년사	30	92			
(대한건설공사) 浚湍7년사	7	75	501		화보
(대한재보험공사) 재보험공사5년사	5	68			
대한재보험15년사	15	79	344	무	
대한재보험25년사	25	88	536	국	
(대한중석광업(주)) 대한중석70년사	70	89	715	무	
대한증권33년사	33	82	348	무	
대한통운사사	37	67	386		
대한통운사사	44	74	1140		
대한페인트잉크45년사	45	90			
책임과 함께 걸어온 50년	50	95	231	국	
대한투자금융10년사	10				
(대한투자신탁(주)) 투자신탁10년사	10	80	358	무 / 국	
대한투자신탁20년사	20	90	748	국	
대한투자신탁10년사	10	87	639	무	
대한항공10년사	10	79	904	무 / 국 / 사	
창공에의 의지(민항 15년의 발자취)	15	84			
대한항공20년사	20	92			
대한화재30년사	30	77			
대한해운20년사	20	89	434		
데이콤10년사	10	93	492	국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라이프그룹30년사	30				
럭키40년사	40	87	937	국 / 사 / 해	
럭키개발20년사	20	91			
럭키증권20년사	20	93	524	무	
롯데건설30년사	30	89	491	무 / 해	
롯데건설35년발자취	35	94	434	해	
롯데알미늄20년사: 1966-1986	20	87	423	무	
무역통신30년사	30				
문화, 경향사사	15	76			
문화방송사사, 1961-1982	20	82	809	국	
문화방송30년사	30	92	1421	국	
메리놀병원40년사	40	91	397	국	
범한화재25년사	25	84			
보령30년	30	94			
부산문화방송사사					
부산은행10년사	10	77	477	무	
부산일보사사, 1946-1984	38	85	588	국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공사10년사	10	89	252	국	
부산파이프30년사	30	91	616	무	
비씨카드10년사	10	92	370	국	
삼도물산25년사	25	87	520		
삼부토건45년사	45	94			
삼삼투자금융10년사	10	92	365	무	
삼성50년사	50	88	928	무 / 해	
(삼성데이타시스템(주)) SDS10년사	10	95	461	국 / 해	
삼성반도체통신10년사	10	87	540	무 / 국 / 사	
삼성전관20년사	20	90			
삼성전자20년사	20	89	1271	무	
삼성중공업20년사: 1974-1994	20	94	733	무 / 국 / 해	
삼성코닝10년사	10	83	449	무 / 국	
삼성코닝20년사	20	93	699	국	
(삼양사) 삼양50년: 1924-1974	50	74	480	무	
삼양60년	60	85	710	무	
삼양70년	70	95	592	사 / 해	
삼양식품21년사	21	82	728	국	
(삼양식품그룹)삼양식품30년사	30	91	777	무	
삼천리산업사					
(삼환기업(주)) 삼환33년사	33	79	1073		
(쌍룡그룹)쌍룡50년사	50	89	760		
(쌍룡)주식회사쌍룡사사: 1954-1989	35	89	304	무 / 국 / 해	
쌍룡양회30년사	30	92	688	무 / 국 / 사	
쌍룡정유10년사	10	86	502	무	
쌍방울30년사	30	93			
서울신문40년사	40	85	806	국	
서울신문50년사	50	95	825	해	가격 표시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서울은행십년사	10	69	382	무	
서울신탁은행합병사		77	488	무	
서울신탁은행30년사	30	89	855	무/국	
서울투자금융10년사	10	83	341	무/국	
선경30년사	30	83	703		
선경40년사	40	93	1238	국/사/해	
성업공사20년사	20	82			
성업공사30년사	30	92	637	국/사	
신동아화재해상보험30년사	30	76			
신성40년사	40	92	455	해	
신세계백화점 25년의 발자취	25	88			
신용보증기금5년사	5	81			
신용보증기금10년사	10	86	596	국	
새한종합금융10년사	10	87	215	국	
세신20년사	20				
영남화학10년사	10	75			
영남화학20년사	20	85	555		
영진약품40년사	40	92			
오리온전기25년사	25	91	400	해	
우풍상호신용금고10년사	10	93	318	국/사	
(웅진출판) 웅진10년사	10	91			
유성기업30년사	30	89	420	무/국	
(유한양행) 유한50년사	50	76	651		
인켈20년사	20	90			
인천투자금융10년사	10	90	335	국	
일양30년사, 1957-1987	30	87	236	국	
(엘지애드) 성장과 도약 33년	33	94	560	무/사/해	
위커힐30년사	30	93	539	국	
원주문화방송20년사	20	91	400	국	
(전남방직) 전방30년사	30	84	438		
전남일보20년사	20	62			
전남일보30년사	30	72			
전북은행10년사	10	79			
전북은행15년사	15	84	593	국	
전북은행20년사	20	89	619	무	
전북은행25년사	25	94	546	국	
전주문화방송30년사	30	95	858	국	
전주제지10년사	10	75	444		
전주제지20년사	20	85			
조선일보50년사	50	70			
조선일보60년사	60	80	693	무/국	가격 표시
조선전업주식회사10년사	10	55	492	무	
조흥은행60년사	60	57			
조흥은행65년사	65	62	316		
조흥은행70년사(65년사 추록)	70	68	156	무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조흥은행75년사(65년사 추록)	75	72	202	무	화보
조흥은행80년사	80	77			
조흥은행85년사(80년사 추록)	85	82	513	무	
조흥은행90년사	90	87	737	무 / 사	
조흥은행95년사(90년사 추록)	95	92	683	국 / 사	
중근당50년사	50	92	1030	무 / 국 / 사	
중소기업은행5년사	5	66	658	무	
중소기업은행10년사	10	71	551	무	
중소기업은행20년사	20	81	501	무	
중소기업은행30년사	30	91	939	무 / 국 / 해	
사진으로 본 기은 31년	31	92	226	무	
중앙고속20년사	20	91	662	국	
중앙개발30년사	30	93	513	사	
중앙일보, 중앙방송10년사	10	75	475		
중앙일보20년지-附 중앙방송17년지	20	85	1163	무 / 국	
중앙일보30년사	30	95	1214	국 / 사 / 해	
중외제약50년사, 1945-1995	50	95	659	국	
진로50년사	50	75	812		
진로그룹70년사	70	94	1115	국 / 사 / 해	
진해화학10년사	10	75			
제일기획15년사	15	88	454	국	
제일모직10년사	10	64	332		
모직20년사	20	74	514	무	
제일모직30년사	30	84			
제일모직40년사	40	94	670	국	
제일생명30년사	30	86	569	국	
제일은행30년지	30	59			
제일은행사십년지	40	69	619	무	
<i>A History of the First City</i>					
<i>Bank of Korea, 1929-1969</i>	40	69			
창립사십오주년기념지(사십년지추록)	45	74	136	무	
제일은행45년사	45	77			
제일은행50년사	50	79	786	무	
제일은행60년사	60	89	977	국 / 사	
제일제당10년지	10	64			
제일제당20년사	20	74	495	무	
제일제당30년사	30	83	558		
제일제당40년사	40	93	746	무 / 국	
제일투자금융10년사	10	87	433	무 / 국	
제일합섬10년사	10	82	514		
제일합섬20년사	20	93			
(제일화재해상보험)제일화재사사	43	92	522	국	
제주신문50년사	50	95	1663	해	
제주은행10년사	10	79	271	무	
제주은행20년사	20	89	456	무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춘천문화방송25년사	25	94	1154	국	화보
청구20년사	20	93	463	무	
충북은행10년사	10	81	369	무	
충북은행20년사	20	91	651	무	
(충주비료) 충비10년사	10	68	580		
충청은행10년사	10	78			
충청은행20년사	20	88	631	무	
코오롱20년사, 1957-1977	20	77	508	국	
코오롱상사40년사	40	95	359	국/사	
태평양50년사, 1945-1995	50	95	940	사/해	
포항제철7년사-일관제철소 건설 기념	7	75	967	무	
포항제철10년사	10	79	1107		
포항제철850만톤준공사		81	465		
포항제철20년사	20	89	1106	무/사/해	
포항제철20년, 땀과 슬기와 정성	20	88	247		
영일만에서광양만까지-포항제철25년사	25	93			
<i>Korea's Posco Lights</i>					
<i>The Way Igniting Steel</i>	25	93		저자 있음	
(하나은행) 한국투자금융20년사-					
하나은행으로 발전하며	20	91	403	무/국/사	
한국경제신문사사		84	355	국	
한국가스공사5년사	5	88	402	무/국/사/해	
한국가스공사10년사	10	93	901	국	
한국가스안전공사20년사	20	95	683	국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25년사	25	87	548	국/해	
한국광업제련사사, 1961-1985	24	87	1070	무/국/사/해	
한국기술개발(주)10년사	10	91	364	무/국	
(한국기업리스)기업리스10년사	10	95	162	국	
한국도로공사10년사	10	79	792	무	
한국도로공사20년사	20	89			
한국보험공사10년사	10	88	699	무/국/사/해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한비10년사	10	74			
한국비료20년사	20	84			
한국비료30년사	30	94	480	국	
한국산업리스20년사	20	93	335	무/국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10년사	10	64			가격 표시
한국산업은행20년사	20	74	653	무/사	
한국산업은행30년사	30	84	850	무	
한국산업은행40년사	40	94	920	무/국	
한국상업은행60년지	60	59	417		
한국상업은행70년사	70	69			
한국상업은행75년사(70년사 추록)	75	74	284	무	
한국상업은행80년사	80	79	751	무	
한국석유개발공사15년사, 1979-1994	15	94	832	무/국/사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검정15년사	15	92	324	국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한국수자원개발공사사					
한국수자원공사25년사	25	94	812	국/해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25년사	25	94	380	국/해	
한국수출입은행5년사	5	81	414		
한국수출입은행10년사	10	86	446	무/국/사	
한국신탁은행5년사	5	73	434	무	
한국염공20년사	20	88	296	무/해	
한국외환은행10년사	10	77	453	무	
한국외환은행20년사	20	87	737	해	
한국유리25년사	25	83	426	무/국	
한국은행5년사	5	55	146	무	
한국은행10년사	10	60	296		
한국은행15년사	15	65			
한국은행20년사	20	70	458	무	
한국은행25년사	25	75	498	무	가격 표시
한국은행30년사	30	80	550	무	
한국은행40년사	40	90	764	국/사	
한국이동통신10년사	10	95	467	무/국	
한국일보20년사	20	74	774	무	
한국일보30년사	30	84	107	사	
한국일보40년사	40	94	1100	무/국	
(한국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10년사	10	73			
자동차보험15년사	15	77			
한국자동차보험20년사	20	83	754		
(한국장기신용은행) 장은20년사	20	87	281	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10년사	10	84	361	국	
한국전력5년사	5	66			
한국전력15년사	15	76			
한국전력20년사	20	81	1975	무	2권
한국전지50년사	50	94	399	국	
한국조폐공사10년사	10	61	190		
한국조폐공사20년사	20	71			
한국조폐공사30년사	30	81			
한국조폐공사35년사	35	86	487	무/국	
한국조폐공사40년사	40	91	657	무/국	
한국종합금융 10주년을 즈음하여	10	86	233	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30년사	30	93	714	국	
(한국종합화학) 종합화학20년사	20	94	727	무	
한국주택은행10년사	10	77	691	국	
주은20년사	20	87	912	무	
한국주택은행25년사	25	92	933	무/국/사/해	
(한국증권금융) 증권금융25년사	25	80	503	무	
한국증권금융30년사	30	85	523	국	
한국증권금융35년사	35	91	715	무/국	
한국증권금융40년사	40	95	665	국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한국증권대체결제)증권대체결제10년사	10	84	519	무 / 국	화보
(한국증권전산) 증권전산10년사	10	87	391	국	
(한국재보험공사)재보험공사50년사	50	68			
한국타이어50년사	50	91	613	무 / 국 / 해	
한국토지공사20년사, 1975-1995	20	95	618	국	
한국토지개발공사10년사	10	89	659	국	
한국통신10년사	10	92	954	무 / 국	
한국투자공사소사		77			
한국투자금융20년사	20	91			
한국투자신탁10년사	10	84	573	무 / 국	
(한국해연료(주)) 한국해연료10년사	10	92	356	국	
(한독약품)사진으로 본 한독약품30년	30				
한불종합금융10년사	10	87	315	무	
(주식회사한성) 한성10년사	10	82	475	무 / 국	
한성20년사	20	91	625	국	
한신증권10년사	10	79	216	무	
한양투자금융10년사	10	83	484	무	
한일리스금융10년사	10	94	388	무	
한일시멘트20년사	20	81	426	무	
한일시멘트30년사	30	92	565	무	
한일약품30년사	30	90			
한일은행30년사	30	63			
한일은행40년사	40	72	805	무	
한일은행45년사	45	77	894	무	
한일은행48년사	48	80	543	무	
한일은행50년사	50	82	1147		
한일은행55년사	55	87	1449	무	
한일은행60년사	60	92	1093	무 / 국	
한일합섬20년사	20	86	805	무	2권
한진50년사	50	95			
합동통신30년사	30	75	381	무	
현대건설35년사	35	82	2344	무 / 국	
현대약품20년사	20	84	864	해	
현대엔지니어링20년사	20	94	654	무 / 국	
현대자동차20년사	20	87	773	무 / 사	
현대자동차사	25	92	1132	무 / 사	
현대전자10년사	10	94	563	국	
현대중공업사	20	92	1489	사	
호남석유화학10년사, 1976-1985	10	86	446	무	
호남정유15년사	15	82	534	국	
호유에너지10년사	10	95	426	국 / 사	

책 이름	年數	발행연도	面數	소장 장소	기타
호텔신라10년사	10	85	445	국	
호텔신라20년사	20	94	617	무	
(화신산업주식회사) 화신40년사	40	66			
화신50년사	50	77	511	무	
해태30년사	30	76	497	무	

주: 1) 소장 장소-무역협회 도서관(무), 국회도서관(국), 사회과학도서관(사), 해운대도서관(해). 소장 장소 미확인인 책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조경식, 『사사편집제작의 실제』, 1982, 237-240면; 한국홍보연구소, 『사사의 기획과 편집』, 1987, 6-10, 59-338면; 김상규, “한국경영사학의 연구 동향”, 『경영사학』 제5호, 1990, 139-140면; 이종순·지정택, “사사 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발전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7호, 1992, 106면; 이한구, 『회사사의 이론과 실제』, 1994, 29-37면; 유귀훈, 『사사제작법』, 1995, 267면 등.

2) 회사사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개별기업가 관련 책도 해당 기업의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오직 이 길 밖에 없다』(1992, LG그룹 구자경), 『성곡김성곤선생일화집』(1985, 쌍룡그룹),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대우그룹 김우중), 『수당 김연수』(1985, 삼양그룹), 『남보다 앞서서 사람이 되라』(1975, 벽산그룹 김인득), 『연강 박두병』(1975, 두산그룹), 『신중 이산가족』(포항제철 박태준), 『누가 새벽을 태우는가』(1992, 포항제철 박태준), 『호암자전』(1986, 삼성그룹 이병철), 『나와 약과 종근당』(1981, 종근당제약 이종근), 『끝없는 전진』(1992, 한국일보 장기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1992, 현대그룹 정주영), 『수송 외길 반백년-나의 비망록』(1994, 한진그룹 조중훈), 『최원석-그 도전과 결단』(1991, 동아그룹), 『개척하는 자만이 역사를 창조한다』(1995, 동아그룹 최준문).